

오리 우체부

고수진 글 · 박현주 그림



독서지도안

1. 읽기 전 활동- 표지 보고 질문 만들기



제목을 보고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1. 오리가 어떻게 우체부가 되었을까?

2.

3.

앞표지를 보고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1. 오리 우체부는 누구에게 편지를 전해 줄까?

2.

3.

2. 과거로 시간 여행

‘내가 가야 시대로 시간 여행을 했다고? 말도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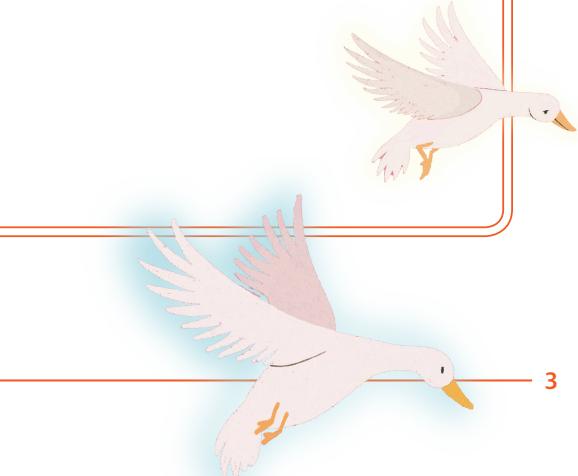
하지만 내 생각과 달리 아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말대로 여기는 금관가야다. 내가 널 불렀어. 네가 살던 시대에서 천오백년 전으로.”

p.19

만약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싶나요? 또, 무엇을 물어보고 싶나요?

신라 시대로 가서
박혁거세를 만나 보고 싶다.
진짜 알에서 태어났는지
물어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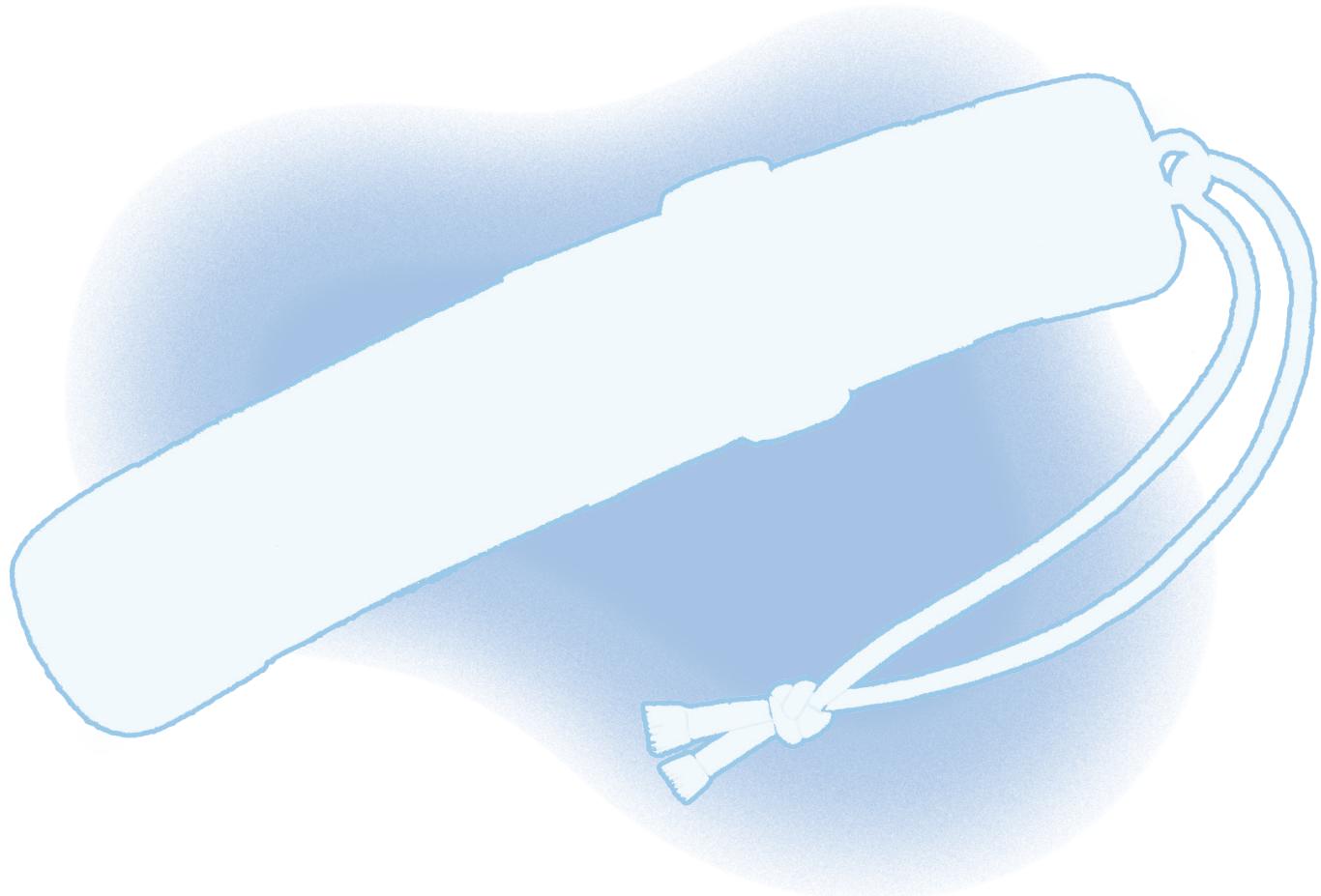


3. 칼집 디자이너

할아버지가 허리춤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두 뼘 정도 되는 길이에 칼집과 손잡이는 검은색으로 매끈하게 칠해졌고, 그 위에 화려한 황금 장식이 박혀 있었다. 한눈에 봐도 높은 신분의 사람이 사용하는 칼 같았다.

p.52

장쇠 할아버지가 만든 칼을 넣을 수 있는 멋진 칼집을 그리고 색칠해 보세요.



4. 주인공 마음 읽기

동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장면에 따른 동주의 감정을 보기 안에서 두 가지 이상 찾아 각각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얼음처럼 굳었다. 머리를 세게 맞은 것처럼 명했다.

‘내가 아빠를 오해하고 있었어. 아빠에게 돌아가야 해.’

아빠와 헤어진 골목으로 힘껏 내달리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를 미워하고 밀어냈던 순간이 너무나 후회되었다. 그때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가 나를 향해 돌진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비명을 지를 틈조차 없었다.

“동주야!” 어디선가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쾅 소리와 함께 온몸에 통증이 느껴졌다. 간신히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아빠 품에 안겨 있었다.

“아빠, 아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아빠가 싫다고 했던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해야 하는데……’

하지만 아빠는 그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라 누나의 간절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라도 대신 나서서 그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다.

p. 72~73

보기

답답하다, 부끄럽다, 미안하다, 슬프다, 울컥하다, 안타깝다, 고맙다, 이상하다, 놀랍다, 유쾌하다, 흥겹다, 뭉클하다, 안쓰럽다, 심심하다, 지루하다, 아깝다, 속상하다, 후회스럽다, 기쁘다, 무섭다

1. 내가 아빠를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2. 아빠가 사고를 당했을 때:

3. 아빠한테 진심을 말할 기회를 놓쳤을 때:

4. 아라 누나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

5. 아라 누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때:

5. 동주의 용기

아도가 내게 시간을 주었을 때, 다시 아빠를 만날 생각에 몹시 기뻤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을 버려야 할 때가 왔나 보다.

‘아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비화 장군의 칼을 꺼냈다. 그러고는 질끈 눈을 감고 굳게 마음먹었다. 세차게 흐르는 강물로 비화 장군의 칼을 떨어뜨렸다. 물속으로 칼이 사라지는 것 이 보였다.

p. 90~91

동주의 어떤 행동이 용기 있다고 생각하나요?

나도 용기를 내서 행동한 적이 있었나요? 언제, 어떤 행동이었나요?

예시 수업 시간에 용기를 내서 발표했다.



6. 조개 목걸이

붉은 까마귀가 내 목 아래쪽을 가리켰다. 문득 조개 목걸이가 떠올랐다. 나는 얼른 품에서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다로 물건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다시 보니 조개가 아니었다. 그건 조개 모양 덮개가 달린 펜던트였다.

나는 무심코 덮개를 열었다. 펜던트 안에 아빠와 엄마, 내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우리 가족이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p. 101

조개 껌데기 안에 우리 가족의 모습을 그려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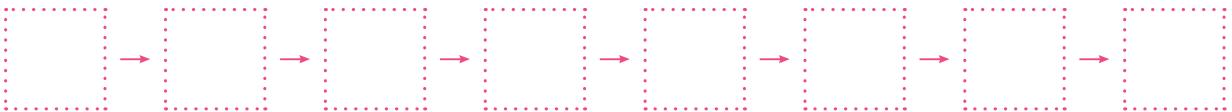


7. 이야기 퍼즐

마지막 장 「오리 우체부」를 읽고 이야기의 흐름을
순서대로 1번부터 8번까지 연결해 보세요.

- 오리는 무지갯빛을 내뿜으며 붉은 까마귀와 싸우고, 마침내 까마귀는 산산조각 나 공중에 흩어졌다.
- 드디어 동주는 아빠와 재회하고, 진심을 담아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뜨겁게 껴안는다.
“이 오리가 네 마음을 언제나 아빠에게 전해 줄 거야. 마치 우체부처럼.”
“오리…… 우체부…….”
- 동주는 깨어나 엄마 품에서 눈물을 흘린다. 엄마는 동주가 깨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한다.
- 오리가 다시 커져 하늘로 날아오르고, 동주는 아빠와 작별 인사를 한다.
- 동주는 조개 목걸이에 대해 엄마와 이야기 나누고, 그 목걸이가 자신을 지켜 주었다고 말한다.
“엄마, 그거 알아요? 이 목걸이가 아니, 우리 가족이 저를 지켜 주었어요.”
- 동주는 아도와 함께 오리를 타고 하늘을 날아 아빠를 만나러 간다.
- ‘오늘 느낀 이 마음을 오리 우체부에게 꼭 말해 줘야지.’
동주는 오늘의 햇살에서 아빠의 따뜻한 웃음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오리 우체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 사고 이후 시간이 흐르고, 동주는 엄마와 함께 산책을 나간다.

번호를 순서대로 적고,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세요.



7. 이야기 퍼즐

동주의 조개 목걸이처럼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 주는 특별한 물건이 있나요?

그 물건이 무엇인지, 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지 적어 보세요.

만약 없다면 친구들과 함께 생각해 보세요.

나의 특별한 물건: 거울

이유 자신감이 없을 때 거울을 보면 미소 짓는 가족 얼굴이 떠올라 용기가 생긴다.

나의 특별한 물건:

이유

나의 특별한 물건:

이유

8. 진심을 전하는 오리 우체부

“하지만 괜찮다. 그럴 때마다 이 오리가 지켜 줄 테니까.”

“그런데 오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오리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존재란다. 이 오리가 그 마음을 이어 주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지.”

나는 아도의 오리를 향해 감탄의 눈빛을 보냈다. 새삼 오리가 대단해 보였다.

p. 110

“나도 사랑한다. 아빠가 항상 널 지켜보고 있을게. 그리고 이 오리가 네 마음을 언제나 아빠에게 전해 줄 거야. 마치 우체부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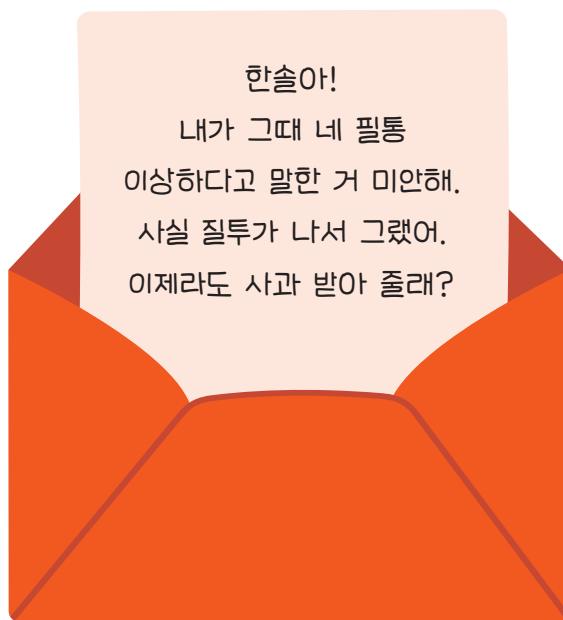
“오리…… 우체부……”

p. 117

이야기 속 오리는 진심을 전하는 우체부였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을 떠올리며 뒷장에 이어지는 편지지에 적어 보세요.



8. 진심을 전하는 오리 우체부

